

심미적 보철 수복을 위한 다각적 접근방법

이승규*, 최대균, 이성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오늘날 수복치료의 최종목표는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있어 “white esthetics” 뿐만 아니라 “pink esthetics”를 얻는 데 있다. 보철치료만으로 심미적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교정학적 고려와 치주학적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보다 이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우선적으로 교정치료는 전통적으로 심미치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치아위치의 4가지 심미적 면에 영향을 준다.

- 1)상하 위치 2)근원심 위치 3)치관의 길이 4)치관의 폭

이러한 교정치료가 보철치료와 함께 이루어질 때,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하여 minor tooth movement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bracket을 이용하는 conventional orthodontic treatment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치주학적인 면이다. 임상가들이 흔히 접하는 문제로 연조직에 관한 것을 빼놓을 수 없으며, 이 중 치간유두의 상실은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발음상의 문제와 심각한 심미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치간유두는 혈액공급이 많지 않은 조직이므로 임상가들은 이 부위에 대한 접근을 꺼렸다. 치간유두 상실의 원인으로는 1)부적절한 보철물 2)치간이개 3)치주질환 4)무치악 결손부 5)forced eruption에 의한 치아폭경의 감소 등이 있으며, 이 각각에 대한 보철적 접근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미적인 치료를 시행할 때 빼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합적인 고려이다. 심미와 교합은 필수 불가결한 공생관계에 있으며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치이다. 전치는 악관절과 후방구치의 힘조절과 안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음의 5가지 전치의 기능을 변경하고 조절할 수 있다.

- 1)esthetics
- 2)muscle activity & force management
- 3)posterior disclusion
- 4)envelope of function
- 5)incisal edge position

본 증례에서는 구치부 치아의 상실로 인하여 전치부의 병적인 이동(pathologic migration)으로 저작장애와 더불어 심미적인 개선을 요하는 환자에게 있어 위에서 언급한 다각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적으로 임시수복으로 구치부 안정을 도모하였고, 전치부 병적인 이동에 대해 임시수복물을 이용하여 minor tooth movement를 행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orthodontic retraction으로 flaring이 감소하였고, 동시에 임시수복물의 형태를 조절하여 치간유두의 생성을 도모하였다. 이 때, 중요한 것으로 교정적 이동 전에 치주질환의 조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정적인 이동 후에는 치아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수복물의 연결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구치부의 안정으로 폐구시 전치부를 보호하며, 전치는 측방운동시 구치를 이개시켜, 상호보호 할수 있도록 교합을 부여하였다. 치료 후 환자는 전치부의 심미성과 동시에 저작능률의 향상이 인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교합의 점진적인 변화를 인지하고 환자의 치태조절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심미적 치료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